

영어교육 42호  
1991년 6월

## 한국인의 영어억양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

구 회 산  
(중 앙 대 학 교)

### I. 서 론

비록 억양은 문어체에서는 표기되지 않지만 구어체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다. 듣는 사람에게 억양의 역할은 상대방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자음이나 모음같은 분절단위 이상으로 중요하다. Fries(1965 : 23)와 Pike(1945 : 107)는 정확하고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억양을 구사하는 외국인의 말이 개별 음가는 정확하나 억양이 바르지 못한 사람의 말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다고 말한다. 이렇듯 억양은 언어행동의 여러 관점 중에서 가장 깊이 뿌리박힌 것이지만 또한 가장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외국어 억양을 습득하는 일은 개별 음가를 배우는 일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로 알려지고 있다. Hall(1972 : 283)은 모국어 억양은 개별음 가나 낱말 및 문장보다 더 일찍이 학습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다른 요소 보다 더욱 억양을 잊어버리기가 힘들다고 말하며 외국어 억양을 배울 때 모국어 억양이 방해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어느정도 한국말을 배운 외국인이 한국말 하는 것을 들어보면 각 분절음, 즉 자음과 모음은 정확히 발음하는것 같으나 전체적인 말흐름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이러한 점이 바로 억양문제인데 그 외국인이 아직 한

\* 이 논문은 1989년도 문교부 지원 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국어 억양을 정확히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우는 한국사람이 영어로 말할 때 영어원어민(English native speaker)들도 똑같은 느낌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학습에서 정확한 억양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모든 언어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데 언어에 따라서 일정한 억양형태를 사용하므로 외국어 억양을 배울 때 어느 정도 모국어 억양이 방해요인이 되리라 가정된다. 그러므로 본 실험연구의 목적은 한국사람이 영어를 할 때 영어원어민 억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음향음성학 실험을 통해 조사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같이 여러나라에서도 외국어억양학습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Anderson(1970)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인이 외국어로서 독일어 억양을 배울 때 영어억양이 미치는 방해요인을 조사하였고, Backman(1977)은 스페인사람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울 때 발생하는 억양문제를 연구하였으며, Karnchnathat(1977)는 태국사람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울때 태국어의 성조(tone)가 영어억양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또한 Sugito & Fujisaki(1984)는 일본사람의 영어에서 나타나는 '외래 악센트'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람의 영어억양을 다룬 연구는 미흡했으며, 실제 음성학실험을 통해 시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험방법을 통하여 억양을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 II. 영어와 표준한국어억양

우선 본 실험연구에서 억양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자. 악센트(accent)는 강세(stress)와 거의 유사한 용어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두 용어는 특정한 음절이 다른 음절보다 더 소리가 강함을 뜻하는데 보통 강세는 낱말단위에서 사용되며, 악센트는 언어를 표현하는 행동의 결과로 생기는 음성, 즉 발화(utterance)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악센트는 구절이나 문장단위의 말에서 사용된다. Bolinger(1958)에 따르면, 낱말강세(word stress)는 사전상의 어휘속에 표시되는 추상적인 음의 우세를 나타내며, 고저악센트(pitch accent)는 실제

적인 대화 속에서 낱말강세를 받는 음절에 나타나는 높고 낮은 음의 움직임은 말하고, 억양은 문장단위의 말에 있어서 말의 시작이나 끝에서 고저음이 움직이는 방향과 악센트 받는 음절간에 상대적 음높이와 같은 고저음의 특질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악센트란 고저음곡선상 높은 지점을 뜻하며, 억양이란 말의 시작이나 끝에서 고저음곡선이 움직이는 방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영어악센트는 주로 낱말강세를 받는 음절에 나타나기 때문에 ‘강세악센트’(stress accent)라고 불려오다가 Bolinger(1958 : 149) 이후부터 ‘고저악센트’라고 불려지고 있다. 표준한국어악센트는 낱말단위에는 오지않고 주로 구와 절의 마지막 음절에 나타나는데 그 음절이 낱말의 음절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Koo, 1986), Martin(1951)도 한국어악센트가 구절의 마지막에 온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표준한국어 악센트는 억양구절의 마지막에 오는 ‘구절악센트’(phrase accent)라고 부를 수 있다.

이상은 악센트 위치에 관한 기술이었고 다음은 영어와 한국어악센트성분을 비교해 보자. Fry(1955)의 실험의도는 악센트 받는 음절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실제 말소리의 고저음(pitch), 음의 강도(intensity) 및 음의 길이(duration)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영어운율 속에서 이 세가지 요소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즉, 두 음절 이상으로 된 영어낱말에서 악센트를 받는 음절이 다른 음절보다 고저음이 높게 올라가고, 강도가 더 세며, 또한 음절의 길이도 더 길어진다는 것이다. 표준한국어악센트 성분을 실험한 결과 구나 절의 마지막에 오는 구절악센트는 강도와 길이에 상관없이 고저음의 높이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 세가지 성분의 상관관계가 약하고 다만 고저음만이 표준한국어악센트의 성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Koo, 1986 : 27-83).

이처럼 양 언어의 악센트 성분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영어악센트는 고저음, 강도 및 길이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세 성분 중에 한가지만 사용하여도 영어악센트를 기술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영어악센트나 억양을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고저음을 도구로 삼아왔고(Bolinger : 1958, Downing : 1970, Liberman : 1978, Pierrehumbert : 1980, etc.), 표준한국어악센트도 가장 우

제한 성분이 고저음이라고 입증되었기 때문에 악센트나 억양을 연구할 때 고저음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Martin : 1951, 1954 ; Lee : 1964 ; 이현복 : 1971 ; 정인섭 : 1965 ; Koo : 1986 참조). 그러므로 본 억양 연구에서도 고저음곡선을 제공하는 기본주파수(Fo ; fundamental frequency)를 사용하기로 한다.

미리 연구의 바탕이 되는 한국어와 영어억양을 대조한 실험연구(구회산 : 1989)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장이 시작될 때 영어억양은 대체로 ‘내림조’(fall), 즉 억양곡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을 보이나 한국어 억양은 거의가 ‘오름조’(rise), 즉 억양곡선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 서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점이 양 언어의 억양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그리고 양 언어의 서술문 문미억양곡선은 둘 다 ‘내림조’로 거의 비슷하다. 직접의문문의 문미억양은 둘 다 ‘높-오름조’(high-rise)로 아래에서 시작하여 급경사를 이루며 높이 올라간다. 간접의문문의 문미억양은 영어에서 ‘내림조’를 보이나, 한국어에서는 ‘오르-내림조’(rise-fall), 즉 억양곡선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현상을 보인다. 감탄문의 문미억양은 둘 다 ‘오르-내림조’를 보여 비슷하지만 한국어는 마지막 음절이 약간 올라가면서 끝난다. 이상 네가지 문장 종류의 문미억양곡선에서 살펴본대로 영어와 한국어 억양의 문두억양곡선 형태는 뚜렷한 차이가 있지만 문미억양곡선에서는 유사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악센트 위치는 위에서 말한대로 영어는 낱말강세 위치에 오고 한국어 악센트는 구절의 끝음절에 와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본 실험연구에서는 악센트와 억양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Bolinger(1985)의 억양에 대한 정의대로 문장단위의 말에서 (1) 말의 시작과 말의 끝부분에서 억양곡선이 움직이는 방향과, (2) 악센트받는 음절간의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를 분석하기로 한다.

### Ⅲ. 실험방법

#### 1. 실험자료

본 실험연구에서 사용될 자료는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 영어문장과 한국

어문장 하나를 선택했다.

- (1) How are you feeling this morning ?
- (2) We are nine very young lazy women.
- (3) Did Emily remember Melinda ?
- (4) It's a beautiful day, isn't it ?
- (5) Mary is beautiful !
- (6) I remember it.
- (7) 영애는 미래를 좋아해.

위에서 문장(1)은 간접의문문으로, 흔히 아침인사로 사용되는 말인데 문두억양곡선과 문미억양곡선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관찰한다. 문장(2)는 서술문으로 문두와 문미억양곡선 뿐 아니라 악센트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중심으로 관찰하게 될 것이다. 문장 (3)에서는 악센트와 직접의문문의 문미억양곡선을 중심으로, 문장 (4)에서는 부가의문문의 문미억양 변화를, 문장 (5)에서는 문미억양과 상대적인 악센트의 비교를, 그리고 문장 (6)은 영어원어민의 영어억양곡선 모형과 한국인의 영어억양곡선을 비교할 것이다. 마지막 문장 (7)은 한국인의 한국어억양이 어떤 형태이며 또한 영어원어민의 한국어억양형태가 어떠한가를 서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 2. 피실험자 선정

이 연구의 목적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사람의 영어억양형태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므로 영어억양의 모델을 제공하는 영어원어민 네명[SD(남), JP(남), SH(여), MF(여)]과 피실험자 네명[KJ(남), LM(남), CJ(여), KH(여)]을 임의로 선택하였다. 영어원어민은 국내 대학에서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있는 미국인 중에서 남녀 각각 두명씩 선정하였는데 그들 모두 미국 중 북부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표준영어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들 중에서 SD와 SH는 MBC방송국에서 영어회화를 담당한 바 있다. 피실험자는 영어를 전공하는 대학생 중에서 서울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아 표준한국어를 사용하는 남녀 각각 두명씩을 선정하였다.

### 3. 음향기재

본 실험에서 억양곡선을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주파수곡선을 프린트할 수 있는 컴퓨터와 음향기재를 사용한다. 컴퓨터는 Macintosh™ 512K를 사용하고, 음향기재로는 Fractical Software가 개발한 BOX를 사용한다. BOX는 마이크를 통해 들어오는 음성의 파장을 계식화하여 컴퓨터 안으로 입력시키는 기능을 하고 기본주파수를 이용하여 억양곡선을 그려주는 음성분석기다. 기본 소프트웨어로는 Macintosh™ 컴퓨터에 사용하는 MacPaint와 MacWrite를, 그리고 음향을 분석하여 억양곡선을 그려주도록 돕는 DOREMI를 사용한다. DOREMI는 50Hz부터 350Hz까지의 기본주파수대를 활용할 수 있어서 보통 말소리를 분석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 4. 녹음 및 분석방법

본 실험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자료를 영어원어민과 피실험자로 하여금 반복해서 세번씩 말하도록 지시하고, 녹음된 음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기본주파수 곡선이 모니터에 나타나면, 세 개씩의 같은 자료에 해당하는 억양자료 중에서 중간 정도의 억양곡선이라도 판단되는 것을 선택해서 프린트한다. 프린트된 자료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인사말 (문장 1)의 억양곡선을 영어원어민과 피실험자 모두의 자료를 한눈에 쉽게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지면관계상 나머지 자료 (문장 2, 3, 4, 5)는 영어원어민과 피실험자 한 명씩의 억양만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게 하며 나머지 자료는 보충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영어 억양 학습에서 모국어(한국어)억양의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의 한국어억양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또한 영어원어민이 한국말을 할 때 어떠한 억양형태를 사용하는지 서로 비교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 IV. 억양분석

본 실험의 목적이 피실험자 각 개인의 억양특징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특징을 찾아보는 것이므로, 여러가지 문장을 사용한 네명의 피실험자들의 억양특징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 모델억양과 비교하기로 한

다. 억양을 분석할 때 본 실험에 참가한 모든 피실험자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지만 지면관계상 각 문장별로 모델억양 하나와 피실험자억양 하나씩만 제시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성별차이에서 오는 억양차이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같은 성끼리의 도표를 비교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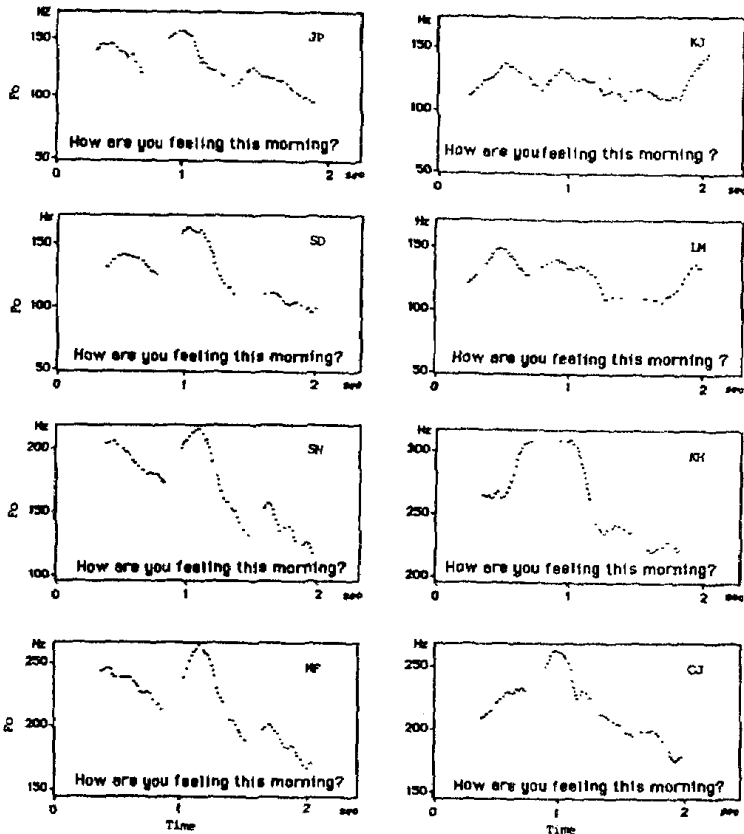


도표 1. 간접의문문 "How are you feeling this morning?"에 대한 미국인 네명 (JP, SD, SH, MF)과 한국인 네명(KJ, LM, KH, CJ)의 영어억양.

도표 1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인사말 “How are you feeling this morning?”에 대한 미국인 네명과 피실험자 네명의 억양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미국인의 억양을 보면, 네명의 억양곡선이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어진 말이 크게 세 부분의 억양단위 즉 ‘How are you’, ‘feeling’, 그리고 ‘this morning’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feeling’이 이 문장에서 가장 강한 악센트를 받고 있다. 말의 첫 억양구인 ‘How are you’의 문두억양도 공통적으로 ‘내림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네명의 미국인은 타당한 모델억양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오른쪽에 제시된 피실험자의 영어억양은 각기 다른 형태의 억양곡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KJ와 LM의 문미억양은 동일하게 ‘높-오름조’이나 KH와 CJ의 것은 ‘내림조’로 서로 대조적이다. 문두억양도 KJ와 LM의 억양은 ‘오르-내림조’이나 KH나 CJ의 것은 ‘오름조’로 피실험자 간의 차이가 크다. 악센트도 차이를 보여 KJ와 LM은 첫 억양구의 ‘are’에 강한 악센트가 왔지만 KH의 경우는 ‘you’와 ‘feeling’에 같은 정도의 악센트가 왔고 CJ의 경우는 ‘feeling’에 현저한 악센트가 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CJ의 억양이 모델억양과 가장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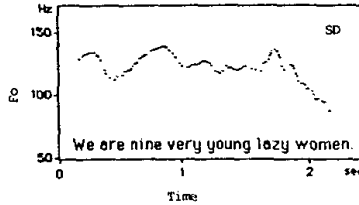


도표 2. 미국인 SD의 서술문 “We are nine very young lazy women.”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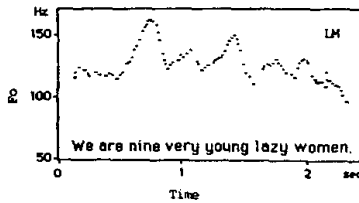


도표 3. 한국인 LM의 서술문 “We are nine very young lazy women.”의 억양.



도표 2와 3은 서술문 'We are nine very young lazy women'의 억양인데, SD의 모델억양과 피실험자 LM의 억양을 분석하기로 한다. 전반적으로 두 도표의 차이는 문두억양과 악센트 받는 음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SD의 문두억양은 '오르-내림조'로 시작되었으나 LM의 억양은 수평을 유지하다가 높이 올라가고 있다. 악센트는 SD의 경우 'We', 'nine', 그리고 'lazy'에 왔으나 LM의 경우 'nine'과 'young' 두 곳에 와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질적으로는 피실험자의 악센트 받는 부분이 더 뚜렷하게 오르내리고 있어 모델억양보다 더 강하게 발음하는 것 같다. 도표 3의 피실험자 영어억양은 도표 12에서 보여주는 한국어 서술문 억양곡선과 거의 같아 한국어억양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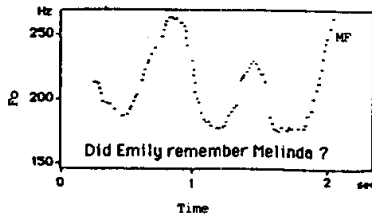


도표 4. 미국인 MF의 직접의문문 "Did Emily remember Melinda?"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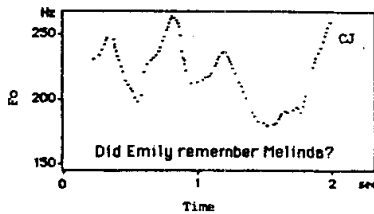


도표 5. 한국인 CJ의 직접의문문 "Did Emily remember Melinda?"의 억양.

도표 4와 5는 직접의문문 'Did Emily remember Melinda?'에 대한 억양인데, MF의 모델억양과 피실험자 CJ의 억양을 살펴보면 대체로 두 억양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미억양에서 '오름조'로 끝나는 것은 같으나 서술문억양에서 나타난 것처럼 CJ의 문두억양은 '오름조'로 시작되었고 MF의 억양은 '내림조'로 시작되고 있다. 또 다른 차이는 CJ의 말의

첫 부분이 높게 시작된 반면 MF는 낮게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악센트는 동일하게 'Emily'에 와서, 전체적으로 피실험자의 억양은 모델억양과 유사하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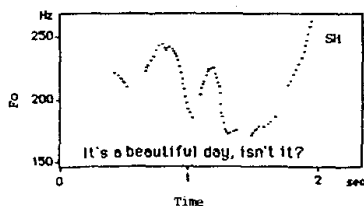


도표 6. 미국인 SH의 부가의문문 "It's a beautiful day, isn't it?"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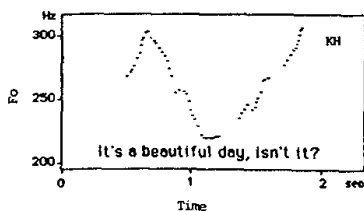


도표 7. 한국인 KH의 부가의문문 "It's a beautiful day, isn't it?"의 억양.

도표 6과 7은 부가의문문 'It's a beautiful day, isn't it?'에 대한 SH의 모델억양과 피실험자 KH의 억양이다. 문미억양의 '오름조'도 같고 'beautiful'에 악센트가 와서 두 억양이 대체로 유사한 것 같으나 두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모델억양의 시작 부분이 '내림조'를 보이나 KH는 '오름조'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피실험자는 'day'를 앞의 억양구에 붙여서 한 단위로 발음했으나, 모델억양에서는 독립된 단위로 취급하여 'day'에 악센트가 왔다. 그러므로 이 피실험자의 부가의문문 억양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도표 8과 9는 감탄문 'Mary is beautiful!'에 대한 JP의 모델억양과 피실험자 KJ의 억양이다. 고저음의 높이는 모델억양이 KJ의 억양곡선보다 더 높으나 전체적으로 '오름-내림조'를 보이는 점은 같다. 두 도표에서 차이는 모델억양의 내려가는 선이 피실험자 것보다 더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반면, 오르는 선은 오히려 피실험자의 것이 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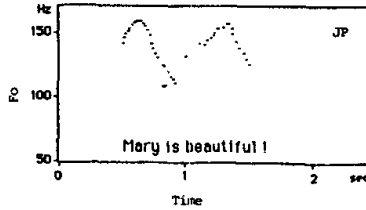


도표 8. 미국인 JP의 감탄문 “Mary is beautiful!”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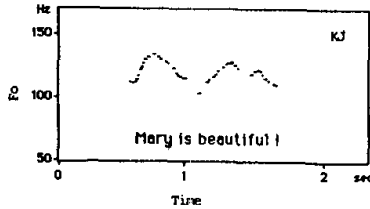


도표 9. 한국인 KJ의 감탄문 “Mary is beautiful!”의 억양.

## V. 결과 및 토론

지금까지 여러가지 영어문장 종류를 사용한 피실험자의 영어억양과 영어모델억양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실험자들의 문두억양은 지금까지 제시하였던 모든 도표에서 확인하였듯이 오르는 현상의 리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은 모델억양의 내림현상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피실험자의 문두억양이 문장종류에 관계없이 ‘오름조’로 시작하는 원인은 한국어억양의 간섭을 많이 받은 탓으로 간주된다. 도표 3의 피실험자 영어 서술문억양과 다음에 설명될 도표 12의 한국인의 한국어억양을 대조하여 보면 분명히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악센트 차이점은 서술문 억양인 도표 2와 3에서 뚜렷이 찾아볼 수 있었다. 도표 2의 영어 모델억양에서 첫 낱말이 악센트를 받았으나 도

표 3의 피실험자 억양에서는 악센트를 받지 않았다. 그 이외의 피실험자 악센트도 정확한 위치에 오지 않은 점으로 보아 한국어 악센트의 간접 패턴인 것 같다. 표준한국어 악센트는 구절의 마지막 음절에 오는데 주로 낱말끝에 붙는 조사나 절의 마지막 음절이 높게 발음된다(Koo, 1986 ; 구회산, 1989). 반면에 영어는 문장의 첫 낱말강세를 받는 음절이나 첫 억양구절을 강하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셋째, 문미억양의 오르고 내리는 현상은 간접의문문과 감탄문에서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영어 모델억양과 별 차이가 없어서, 한국인이 영어의 문미억양을 습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즉, 영어와 한국어 억양의 문미억양 형태가 매우 유사한 점 때문이다.



도표 10. Delattre가 만든 미국인의 "I remember it"에 대한 도식화된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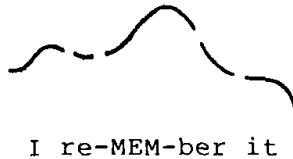


도표 11. 본 실험에서 얻어진 한국인의 "I remember it"에 대한 도식화된 억양.

지금까지는 문두억양, 악센트 및 문미억양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외국어억양을 학습할 때 이러한 세가지 요소 뿐 아니라 억양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리듬 문제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Delattre(1963)는

외국인의 영어억양 모델을 음향자료를 사용하여 제시한바 있는데, 미국영어의 보통 리듬은 도표 10에서 보여주듯이 역 S자 모형( )으로 ‘내림조’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Delattre는 스페인, 독일 그리고 불란서 사람들의 영어억양 모델을 제시하면서 자기 그들이 모국어억양 형태의 간섭을 많이 받았다고 발표했다. Shimaoka(1960)도 음향실험을 통해 일본사람 역시 영어억양 형태가 모국어억양을 많이 닮았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도 Delattre와 Shimaoka가 사용했던 2-3-1형의 고저음억양단계를 수반하는 서술문 ‘I remember it’을 사용하여 도표 11과 같이 도식으로 만든 한국인의 영어억양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영어의 역 S자 모형과 달리 한국어 기본 억양리듬은 S자 모형( )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영어와 한국어는 기본적인 억양리듬도 다르다.

지금까지는 영어억양학습을 목표로 외국어억양 간섭을 주로 다루어 왔는데 이번에는 외국어로써 한국말을 배우는 영어원어민의 표준한국어 억양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도표 13은 미국인 MF의 한국어 서술문 ‘영애는 명래를 좋아해’에 대한 억양인데, MF의 한국어악센트와 문미억양은 거의 유사하여 구절의 마지막 음절인 ‘는’과 ‘를’에 악센트가 와서 한국어 모델악센트 위치와 같고 또한 ‘내림조’를 보이는 문미억양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MF의 한국어 억양은 억양구의 시작 부분인 ‘영애’와 ‘명래’ 두 부분에서 ‘내림조’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오름조’를 보이는 한국인 KH의 억양(도표 12)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도표 13에서 미국인 MF의 한국어 문두억양과 도표 2의 영어 문두억양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인의 한국어억양도 영어억양의 간섭을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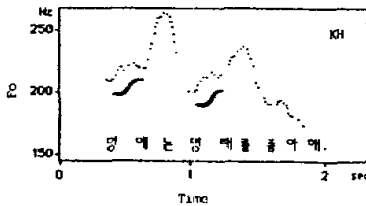


도표 12. 한국인 KH의 “영애는 명래를 좋아해”의 한국어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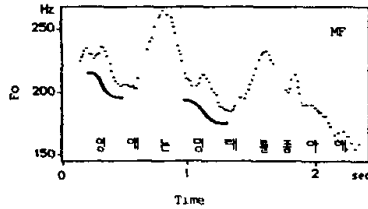


도표 13. 미국인 MF의 “영애는 명래를 좋아해”의 한국어 억양

이와같이 외국어억양을 학습할 때 모국어억양이 장애가 된다는 결과는 Delattre(1963), Anderson(1970), Backman(1977), Karnchnathat(1977), 그리고 Sugito & Fujisaki(1984)와 같은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Delattre와 Sugito & Fugisaki의 연구는 이러한 증거를 음향자료로 사용한 시작자료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용이하다.

## VI. 결 론

본 실험연구의 목적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사람의 영어억양특징을 조사하고 영어원어민의 모델억양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아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 실험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영어억양은 영어의 모델억양과 비교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말이 시작될 때 문두억양이 ‘오름조’로 시작되어 영어 모델억양의 ‘내림조’와 대조 된다.

둘째, 악센트 받는 위치가 강세와 리듬법칙을 따르는 영어 모델억양과 차이가 있다.

셋째, 억양의 기본 요소 즉 말소리의 흐름인 리듬이 ‘S’자 형으로 억양 구절마다 음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서 영어 모델억양의 내려가는 경향인 역 ‘S’자 형과 다르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한국학생들이 아직 영어억양을 정확히 습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

국사람들은 말을 시작할 때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구절의 마지막 음절을 강하게 하고, 또 오르는 경향의 리듬을 사용하는 습관 때문에 영어원어인의 영어억양을 정확히 모방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사실은 외국어 억양학습에서 모국어억양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여기에서는 음향음성학 실험을 통해 제한된 피실험자와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영어억양 특징을 기술하지만, 앞으로는 청각판단을 이용하는 방법과 같은 새로운 방향의 연구로 이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다시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회산. (1989). 영어와 한국어억양 대조분석. 「영어교육」, 38, 47-63.
- 이현복. (1971).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 10-2, 15-23.
- 정인섭. (1965). 우리말 악센트는 고저(pitch)악센트다. 「중앙대 논문집」, 10, 9-49.
- Anderson, K. O. (1970). *Some aspects of English language interference in learning German intonation*. Ph. D. dissertation, Univ. of Colorado.
- Backman, N. E. (1977). *Intonation problems of eight Spanish speaking adults learning English*. Ph. D. dissertation, Boston Univ.
- Bolinger, D. (1958). A theory of pitch accent in English. *Word*, 14., 104-49.
- Delattre, P. (1963). Comparing the prosodic features in English, German, Spanish and French. *IRAL*, 1, 193-210.
- Downing, B. (1970). *Syntactic structure and phonological phrasing in English*. Ph.D. dissertation, Univ. of Texas at Austin.
- Fries, C. C. (1965).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 Arbor : Univ. of Michigan Press.
- Fry, D. B. (1965). Duration and intensity as physical correlates of linguistic stress.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27, 73-68.
- Hall, R. A. (1972). Elgar and the intonation of British English, in Dwight Bolinger (ed.), *Intonation : Selected Readings* (Penguin Books), 283.
- Karnchanathat, N. (1977). *An instrumental study of Thai speaker's English intonation*. Ph. D. dissertation, Univ. of Michigan.
- Koo, H. S. (1986). *An experimental acoustic study of the phonetics of intonation in standard Korean*. Ph. D. dissertation, Univ. of Texas at Austin.

- Lee, H. B. (1964). *A study of Korean (Seoul) intonation*. M. A. thesis. Univ. of London.
- Liberman, M. (1978). *The intonational system of English*. Ph. D. dissertation, MIT.
- Martin, S. E. (1954). *Korean Morphophonemics*. Baltimore :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 (1951). Korean phonemics. *Language*, 27-4, 519-33.
- Pierrehumbert, J.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 D. dissertation, MIT.
- Pike, L. (1945). *Intonation of American English*. Ann Arbor : Univ. of Michigan.
- Shimaoka, T.(1966) A contrastive study on rhythm and intonation of English and Japanese with spectrographic analysis. *The study of sounds*, 7, 347-362.
- Sugito, M. & Fujisaki, H. (1984).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foreign accent" in English Spoken by Japanese. *The Study of Sound*, 20, 313-328.



## &lt;Abstract&gt;

## A Phonetic Study of Koreans' English Intonation

Hee-San Koo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al acoustic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peakers' English intonation. Four English native speakers and four Korean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as subjects in this experiment. The English pitch contours of the native speakers and Korean speakers were compared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ir intonational differen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Korean speakers' English intonation are (1) the use of a 'low-rising' contour at the beginning of most utterances, where English native speakers normally use a 'falling' contour and (2) the use of an 'S' rising contour as a component of an intonational phrase, where English native speakers usually use a reversed 'S' falling contour which is characteristic of English. It seems that Korean speakers' English intonation is related to the prosodic system of their native language.

The findings of the experimental data may be used by teachers of English for Korean speakers as guidelines to some sources of Korean students' deviations from English intonation.